【 2015.09.04(금) 강원도민일보 】

"도민역량 모아 강원 3대 위기 극복하자"

제4회 강원고용대상 시상식… 오늘 제12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2015 강원사랑 3대 기획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민회중앙회

출향도민을 포함한 330만 강원도민들의 응축된 힘으로 강원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시대와 동북아시대 주도를 다짐하는 장이 마련됐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민회중앙회가 공동주관하고 강원랜드 등이 후원하는 '2015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및 제4회 강원고용대상 시상식'이 3일 오후 정선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전순표 강원도민회중앙회장를 비롯해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 권석주 도의회 부의장 및 도의원, 서경원 도 경제진흥국장, 박동언 강원경영자총협회장, 강순삼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장대순 정선부군수, 신두옥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양희봉 강원중기청장, 최돈진 중기중앙회 강원지역회장 등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 출향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원도민의 뜨거운 열정을 총집결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전철 사업 등 도내 주요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동북아시대를 선도해 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강원고용대상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원주 네오플램에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우수상에 선정된 정선 우리주민과 태백 강원복지회에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 장려상을 받은 원주 굿플과 홍천 산돌식품에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전달됐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는 정치의 위기, 교육의 위기, 경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330만 강원도민들의 강한 힘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 이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전순표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은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과 기업 등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강원도민 모두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무장해 세계로 웅비하는 강원도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서경원 경제진흥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는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어려운 경영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애쓴 수상업체들과 행사를 주최한 강원도민일보사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이틀째인 4일 오전부터는 '제12회 금강배 강원사랑 골프대회'가 하이원CC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4·6면

정선/박현철·안은복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주요 참석자 명단

△전순표 강원도민회중앙회장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 △권석주 강원도의회 부의장 △서경원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장대순 정선부군수 △박동언 강원경영자총협회장 △강순삼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김경중 강원랜드 부사장 △김대호 강원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 △신두옥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김도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총무이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양희봉 강원중기청장 △최돈진 중기중앙회 강원지역회장 △박용란 중기중앙회 강원본부장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조용형 강원지식재산센터장 △박기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완식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장 △박연희 금융감독원 춘천사무소장 △박영식 에너비즈협회 강원지회장 △이부용 강원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조종수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황희경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본부 팀장 △전주수 춘천부시장 △전순란 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지회 부회장 △박안규 태백상공회의소장 △황억철 태백상공회의소 국장 △장대현 고려가구 회장 △심응중 정선군의회 부의장 △진길우 정선군의원 △유재철 정선군의원 △정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 사무처장 △권학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장석삼 도의원 △박길선 도의원 △홍성욱 도의원 △신상복 강원도민회중앙회 사무처장 △조근식 울산도민회장 △송자훈 제경 춘천시민회장 △김석준 제경 삼척시민회장 △허광훈 제경 고성군민회장 △김현수 제경 양양군민회장 △이해선 제경 평창군민회장 △권영훈 제경 영월군향우회장 △권혁원 강릉시민회 태백회장 △김송열 태백교육장 △윤대현 태백시번영회장 △함병철 농협 태백시지부장 △이한영 태백시의원 △최안혜 신원주공인중개사무소장 △노진선 하이트진로 영서지점장 △김우경 차액물류네트웍 대표 <무순>

이모저모

"강원경제 대박난다" 힘찬구호

각계각층 축하 화환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및 제4회 강원고용대상 시상식에 축하화환이 답지.

최명희 도시장군수협의회장(강릉시장),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 김기선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 김대호 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이봉찬 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신두옥 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등이 행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화환을 보내 축하.

"고용창출 채찍 삼겠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원주 네오플램 박창수 대표는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감격을 표시. 박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직원과 고객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경기 화성에서 원주 지정면 기업도시로 이전한 후 468명을 고용하고 수출은 전년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 1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번 대상은 그 동안 성과를 격려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라는 채찍으로 삼겠다"고 다짐.

강원경제 위기극복 다짐

◇…행사 참석자들이 강원경제 대박을 기원하는 구호를 외쳐 눈길. 참석자들은 '강원경제 대박난다' '강원사랑 넘쳐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강원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

신두옥 여성경제인협회 도회장은 "오늘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을 보며 강원의 힘을 느꼈다"며 "강원도민의 힘이 모이면 어려운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도립무용단 공연 눈길

◇…이날 만찬 시작과 함께 김영주 단장이 이끄는 도립무용단이 전통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도립무용단은 도내 18개 시군의 전통 마을을 아름다운 춤사위로 표현. 김 단장은 "강원도내에는 아름다운 전통 마을들이 많이 있어 이를 춤으로 승화 시켰다"고 설명.

한편 주최측은 정선에서 생산된 수리취떡을 감사의 표시로 참석자들에게 제공, 큰 호응을 얻기도.

함승희 대표 지역상생 강조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이날 만찬에 앞서 강원랜드의 역할,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해 눈길. 함 대표는 "강원랜드로 오기 전에는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다"며 "강원랜드에 와서 보니 직원들의 60%가 지역주민들의 자녀이고 지역사회에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

이어 "도박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지역과 상생 발전해 가는 강원랜드를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언급. 박성준 kwwin@kado.net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소통 행보' 눈길

홍천 시작으로 18개 시·군 순회 간담회… 회원사 애로 청취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의 '소통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건협 강원도회에 따르면 오 회장은 최근 홍천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간담회 대장정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돌면서 회원사들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듣고 협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이 홍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첫 테이프를 끊은 홍천 간담회에서는 홍천건설지역협의회(회장 장관영)와 함께 노승락 홍천군수를 예방하고 지역공공공사 분할발주 등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 회원사들에 건설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낸 회원사들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성격이 짙다. 지난 6월 말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회원사 수익성 개선 및 지역 수주물량 확보 △업역 및 회원사 권익 보호 △도회 위상 제고 △회원 간 화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협회 발전을 위해선 회원사 간의 화합 및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오 회장의 생각이다.

오는 9일에는 평창, 17일에는 고성에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나머지 시·군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회장님께서 워낙 열정적이라 연말까지 18개 시·군을 돌 계획"이라며 "그동안 신임 회장들도 취임 이후 순회 간담회를 열었으나 모든 시·군을 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오 회장은 "강원도는 인구에 비해 넓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 간 견해 차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협회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순회 간담회를 계기로 시·군별로 구성돼 있는 지역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해 단합된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퇴직금 감소 불이익 방지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중도인출 사유도 확대
전세금 상승 부담 완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사유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깎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현재 중간정산은 요건이 제한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미 정년 60세가 보장된 공기업 등이 정년 추가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을 최종 퇴직 때 평균 임금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근로시간이 감소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도 쉬워지도록 했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과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비·혼례비'가 추가된다. 중도인출 사유에도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더해진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기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후준비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IRP 계좌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연금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윤석기자 ysys@